

반품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소고*

김 성 기**

.....

반품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가능성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판매시점에 해야 한다. 판매시점에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익·비용 원칙이 파기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제시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회계처리를 제시한다.

.....

I. 서 론

기업은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때는 구입했던 제품을 반환하고 현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판매시점에서 반품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익을 측정하여야 한다. 만일 반품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면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수익이 미래 현금유입액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企業會計基準』에 따르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인도시에 반품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아 인도된 제품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 인도된 제품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II.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판매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판매된 상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상품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거래에 대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會計基準適用意見書」에 따르면 판매시점 또는 회계기간 말에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예: 반품추정부채)로 설정한다. 판매시점이나 회계기간 말에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예: 반품재고자산의 감액손실 등)은 반품추정부채에 추가로 가산한다.

반품비용은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산한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 중 원가성 있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반품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었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아니라 실제반품시 발생한 반품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보유 중 발생한 평가손실과는 달리 매출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본다.

반품시점에서 반품으로 인한 실제손실발생액과 반품추정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① 반품으로 인한 실제손실발생액과 반품추정부채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 매출액 중 반품예상액과 반품비용예상액에 대한 반품추정부채를 회계기간말에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매출액 중 반품예상액에 대한 분개:

매 출	xxx
매출원가	xxx
반품추정부채*	xxx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의 매출총이익	
반품비용(매출원가)*	xxx
반품추정부채	xxx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의 매출원가	

반품비용발생예상액에 대한 분개:

반품비용	xxx
반품추정부채	xxx

반품시점:

반품비용(판매비)	xxx
현 금	xxx
반품재고자산	xxx
반품비용(매출원가)	xxx
매 출	xxx
매출채권(또는현금)	xxx

- ㉠ 반품시점에서 반품수량에 해당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 ㉡ 반품시점에서 반품으로 인한 실제 손실발생액이 반품추정부채를 중요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 반품된 시점에서 반품추정부채를 감소시키고 회계기간 말에 반품추정부채를 다시 설정한다.
- ㉣ 반품되는 회계연도의 매출과 매출원가가 왜곡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액(또는 미달액)을 판매비와 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분류한다.
- ㉤ 반품관련추정비용의 대부분이 반품재고자산의 감액손실과 관련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반품관련비용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매출총이익률 및 매출원가율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

예제

· 회사는 제품판매 후 2개월 내에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1차연도 12. 29.에 제품을 ₩100,000(매출원가율: 80%)에 판매하였다. 이 중 1%(₩1,000)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반품관련비용 ₩5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기말재무제표에 설정된 반품추정부채는 다음과 같이 ₩250이다.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의 매출총이익	₩200
반품추정비용	<u>50</u>
반품추정부채	<u>250</u>

- 판매가격이 ₩1,050인 제품이 2차연도 2. 1.에 반품되어 반품관련비용 ₩45이 발생하였다. 반품된 제품의 판매가격은 ₩900(반품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은 ₩700)이다.
- 2차연도 11. 3.에 매출은 ₩600,000이고, 이 중 ₩6,200이 2차연도 12. 5.에 반품되고, 반품 관련비용 ₩200이 발생하였다.
- 2차연도 12. 10.에 2차연도의 매출채권 ₩493,000이 회수되고 2차연도 반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매출액은 ₩100,000이고 이에 대하여 반품관련비용 ₩50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2차연도 12. 31.에 요구되는 반품추정부채잔액은 1차연도와 동일한 ₩250이다.
- 반품으로 인한 실제손실발생액과 반품추정부채와의 차이는 중요하고 판단하였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차연도에 필요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① 1차연도 12. 31.에 장부에 기록한
분개

매 출	1,000
매출원가	800
반품추정부채	200
반품비용	50
반품추정부채	50

② 2차연도 12. 31.에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분개

매 출	900
매출원가	720
반품추정부채	180
반품비용	45
반품추정부채	45

위의 ①과 ②를 비교하여 2차연도 2. 1.에 다음과 같이 오류를 수정한다.

- ㉠ 매출수익 ₩100을 인식한다.
- ㉡ 매출원가 ₩80을 인식한다.
- ㉢ 반품비용의 절약액 ₩5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2차연도 2. 1. 시점에서 영업외수익은 다음과 같이 ₩25이다.

매 출	₩100
반품비용	5
매출원가	<u>(80)</u>
영업외수익	<u>₩ 25</u>

2차연도 2. 1. 반품시점:

반품추정부채	250
반품재고자산	720
매출채권	900
현 금	45
영업외수익	25*

2차연도 12. 5. 반품시점:

2차연도 12. 31. 결산시점**:

반품비용(판매비와관리비)	20*
반품재고자산	20
*재고자산 감액손실: ₩720-₩700=₩20	

매 출	1,000
매출원가	800

		반품추정부채	200
매 출	6,200		
매출채권	6,200	반품비용(판매비와관리비)	50
		반품추정부채	50
반품재고자산	4,960		
매출원가	4,960	**반품된 시점에서 반품추정부채를 감소시켰으므로 당기 말 예상되는 반품관련비용을 추가로 반품추정부채로 설정한다.	
반품비용(판매비와관리비)	200		
현 금	200		

III. 대안

「企業會計基準」에 따른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판매시점에서 반품권이 부여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에서 매출환입예상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매출환입예상액을 매출환입충당부채로 설정하였다가 상품이 반환될 경우 매출환입충당부채계정의 대변잔액을 감소시키면 반품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매우 간편해진다. 즉, 판매시점에 판매가격에서 매출환입예상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매출환입충당부채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따라서 매출계정은 반품이 예상되지 않는 상품의 판매가격으로 기록된다. 이를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판매시점:

매출채권(판매된 상품의 총판매가격)	XXX	
매출(총판매가격-매출환입예상액)		XXX
매출환입충당부채(반품예상상품의 판매가격)		XXX
매출원가(판매된 상품의 총취득원가)	XXX	
재고자산		XXX

위의 두 번째 분개는 계속기록법의 사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 판매시점에서 이 분개를 할 필요가 없다.

매출환입충당부채계정은 자산평가계정으로서 동 계정의 잔액은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한다. 따라서 매출환입충당부채계정 잔액을 차감한 후의 매출채권순액은 순실현가능액이다.

반품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한다.

재고자산(반품예상상품의 취득원가)	XXX	
매출원가(반품예상상품의 취득원가)		XXX

그러나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위와 같은 수정분개를 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매우 번거로우므로 기말에 일괄적으로 수정분개를 한다. 즉,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기에 판매되었으나 다음 회계기간 이후에 반품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에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한다.

재고자산	XXX	
매출원가		XXX

위의 분개에 기록되는 금액은 차기에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의 취득원가이다. 이 금액은 판매시점에서 예상했던 매출환입추정액에서 당기 중 실제로 반품된 상품의 판매가격을 차감한 잔액에 매출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판매된 상품이 실제로 반품된 경우에는 환입상품이 판매되었던 시점에서 판매가격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반품시점:

매출환입충당부채(판매되었던 시점의 판매가격)	XXX	
매출채권		XXX
재고자산*	XXX	
매출원가		XXX

*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던 회계기간 말에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반품시점에서 이 분개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분개에서 매출환입충당부채계정의 대변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품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매출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예제

자물통회사의 1차연도 매출액은 ₩100,000이며, 판매된 상품에 대해 반품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물통회사의 매출원가율은 매출의 70%이고 1차연도의 매입액은 ₩70,000이며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자물통회사는 반품률을 매출액의 16%로 추정하였으며, 당기중 실제반품액은 ₩9,000이다.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분개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u>계속기록법</u>		<u>실지재고조사법</u>
매입시점:			
재고자산	70,000	매 입	70,000
현 금	70,000	현 금	70,000
판매시점: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	100,000
매 출	84,000	매 출	84,000
매출환입충당부채	16,000	매출환입충당부채	16,000
매출채권	70,000		
재고자산	70,000		
반품시점:			
매출환입충당부채	9,000	매출환입충당부채	9,000
매출채권	9,000	매출채권	9,000
재고자산	6,300		
매출원가	6,300		

회계연도 말:

판매시점: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	100,000
매 출	84,000	매 출	84,000
매출환입충당부채	16,000	매출환입충당부채	16,000
매출채권	70,000		
재고자산	70,000		

판매시점:

		매출원가	70,000
		매 입	70,000
		재고자산	6,300*
		매출원가	6,300
재고자산	4,900**	재고자산	4,900**
매출원가	4,900	매출원가	4,900

*기말창고실사액임

**($\text{₩}16,000 - \text{₩}9,000$) \times 70%= $\text{₩}4,900$

IV. 결 론

반품이 금액상 중요하고 동일한 상품에 대한 매출과 매출환입이 각각 다른 회계기간에 이루어지면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익측정과 자산평가를 적절하게 하려면 반품액을 판매시점에서 예측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판매시점 또는 회계기간 말에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품추정부채로 설정한다. 또한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반품추정부채에 추가로 가산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Considerations upon Accounting Process of Right of Return

Kim, Song Ki*

Frequently purchasers of merchandise have the right of return the goods they purchase for a full or partial refunds.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right of return affects revenue recogn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 valuation. When returns are substantial, recognizing returns only as they occur could cause income to be overstated in the period of the sale and understated in the return period. To avoid the distortion of income measurement and asset valuation when amounts are material, the amount of returns should be estimated and an allowance for estimated returns should be established. If, however, returns are unpredictable, the goods should not be considered sold and not be removed from its inventory. The Korean reporting standards relating to the return are quite complex.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accounting treatment for sales returns.

Keywords: sales return, right of return, asset valuation, revenue recognition, income measurement

*Refired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